

SK, 중국시장 공략 통해 세계화

최태원 회장, “따로 또 같이” 경영 ... 협력사와 상생경영도 추진

최태원 SK 회장이 중국 중심의 세계화와 <따로 또 같이> 경영 실천력 제고, 소외계층 돕기와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2006년 그룹 경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2006년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출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자”며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추진은 생존을 위한 최우선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2004년 발표한 <따로 또 같이> 경영 실천력 제고를 위해 철학과 문화 및 경영기법과 경험,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계열사간 공유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6년에도 소외계층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확산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동반 관계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2005년 경영성과와 관련해 그룹 전체 매출액이 사상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고, 수출도 2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룩했으며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SK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0조를 돌파했고, 인천정유 인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이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

정보통신 계열사인 SK텔레콤도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원을 달성했고, SK건설은 쿠웨이트에서 12억달러 수준의 원유집하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화학저널 2006/01/03>